POBA LIFE

POBA MAGAZINE VOL.19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전시청
산림녹지과

아름다운 동행
서산시청
우리두리봉사단

테마
#가족

제철 레시피
이 계절의 감칠맛, 과메기

POBA 인터뷰
이욱희 감사

POBA NEWS

POBA LIFE

POBA MAGAZINE VOL.19

CONTENTS

POBA 광장

03 POBA 인터뷰 — 이욱희 신임 감사

07 POBA 인베스트먼트 — 공제회가 투자한 국내/해외자산
- 고양 삼송물류센터/바르셀로나 코베가 레지던스

10 공제제도 알아가기 — 2023년 개선되는 공제제도 3가지

11 POBA 뉴스 — 급여율 인상 및 회원 이벤트 소식

회원마당

15 인터뷰 <대전시 산림녹지과> — 국가숲길에서 국가정원까지 도전하는 산림녹지과와의 만남

19 인터뷰 <서산시 봉사단> — 16년간 매월, 지역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두리봉사단과의 만남

23 회원추천 지역 맛집 — 추운 겨울에 사랑받는 대전의 명물 칼국수 소개

27 제철 요리법 <과메기> — 과메기의 효능과 과메기 조림법 소개

30 추천 문화행사 — 추천 전시회, 뮤지컬, 영화 소개

34 新취미 소개 <뜨개질> — 손뜨개 도구 고르기부터 유튜브 강의 소개

38 재테크 칼럼 <환테크> —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의 '환테크' 재테크 소개

테마 라운지 [가족]

42 칼럼 <가족의 힘> — 나에게 힘을 주는 가족의 힘

45 가족 소설·영화 추천 — 가족을 다룬 추천 소설, 영화

48 가족을 위한 4가지 대화법 — 행복한 가족을 위한 4가지 대화법

51 <마포구 가족행복지원과> — 다문화 가구와 1인 가구를 위한 '1인가구지원팀'인터뷰

글로벌 스탠더드 시대, 감사가 변해야 조직이 삽니다
이욱희 감사

2022년 12월 12일, 이욱희 감사가 행정공제회에 새로 부임했다.
“과거에는 지적과 감시가 감사의 주 업무로 인식되었으나 이제 컨설팅 기능까지 포함하며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라며
“그 흐름에 맞춰 공제회의 자산을 지킬 것”이라고 계획을 밝힌 그는 주요 기관들에서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펼쳐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Q 먼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공제회의 일원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행정공제회가 기관 투자자로서 시장에 미치는 역할이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그 규모 역시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행정공제회 위상 정립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Q 감사님의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출발은 금융감독원(전, 보험감독원)이었는데 그곳에서도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감사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또 세계 3대 규모인 국민연금공단에서 970조 원 규모의 자금운용과 관련된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기도 했고, 국가 금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150조 원 규모의 자금운용과 관련된 준법감시담당관(서기관)으로서 2년간 업무를 하였습니다.

행정공제회에 오기 직전에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의 비상임 감사 및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역임하였고, 또 우리 감사인들이 제대로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기법 및 감사와 조직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감사 문화 등을 전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업체 GRC아카데미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공제회에서 하는 업무와 비슷한 일들을 여러 민간, 공공, 국가기관에서 30여 년간 하였습니다.

Q 감사 전문가로서 자신의 특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 공공기관, 국가기관에 골고루 근무해 봤기 때문에 각 기관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금융 관련 업무를 평생 해왔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자신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근무한 덕분에 각 기관의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필요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 또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만 있다 보면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른 기관과의 차이점은 뭔지, 또 배워야 할 부분은 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고인 물이 되는 거지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을 우리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줄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가진 게 제 장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Q 행정공제회 부임이 결정되면서 큰 밑그림을 그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요?

감사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발, 통제, 감시 같은 개념의 감사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는 예방과 컨설팅을 강조하는 역할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또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이 그 과도기라고 보고 있는데 행정공제회 역시 그 시점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 기관에서는 감사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감사에서 지적되면 본인의 이력 관리,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조직을 망친다, 감사 때문에 조직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요.

제가 얼마 전 신문에 기고도 했지만 저는 감사가 변해야 조직이 변한다, 조금 더 나아가 감사가 변해야 조직이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발하고 지적질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싫은 소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를 '예방주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처음에 따끔하고 아프죠. 심한 경우 드러눕기도 하는데 결국 그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튼튼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새로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바꾸어야 하고, 사람 위주의 업무처리가 아닌, 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정착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윤리경영, 투명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기업 규모가 작았습니다.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역할 역시 상당히 낮았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탈법이나 편법을 저지르더라도 일단 돈을 잘 버는 게 지상 과제였고, 감사가 이 과정에서 태클을 걸면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규모와 경제 위상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올라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규모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진입했지만 너무 급하게 성장하다 보니 프로세스, 시스템, 마인드 등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지요.

지금 우리는 개인소득이 3만 5천 달러가 넘는, 먹고살 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과거처럼 편법적·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투명경영, 정도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개처럼 버는 과정을 용납해주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버는 것도 정승처럼 벌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합니다.

Q 부임 후 업무보고를 계속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직원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어떤 조직은 서로 반목하고 시기, 질투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일단 매우 착하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우리 행정공제회가 수익이 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일하고 또 내가 한 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관행대로 해오던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짚어주고 또 새로운 방식을 전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2023년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감사의 역할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고, 서로 협조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직의 역량을 감안하면서 하나둘씩 능력이 되는 대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속도 조절은 필요하겠죠.

Q 전국의 회원님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회 자산은 회원님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회원님들의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면서 정승처럼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지방행정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고객이신 회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글 이경희 **사진** 307스튜디오

희소성 높은 물류센터와 높은 수요를 보이는 임대주택에 투자

행정공제회는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희소성이 높은 고양시 삼송물류센터에, 해외에서는 수요가 충분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임대주택에 투자했다.

국내 투자
희소성이 높은 수도권 동북부 자산

고양 삼송물류센터

행정공제회는 수도권 동북부 중 고양시 삼송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높고, 대규모 배후 인구를 보유한 삼송물류센터를 핵심 자산으로 매입했다. 삼송물류센터는 2030년 완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을 포함한 전 지역의 수요를 포괄하는 CDC(Central Distribution Center)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는 대규모 물류센터 공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희소성이 높은 자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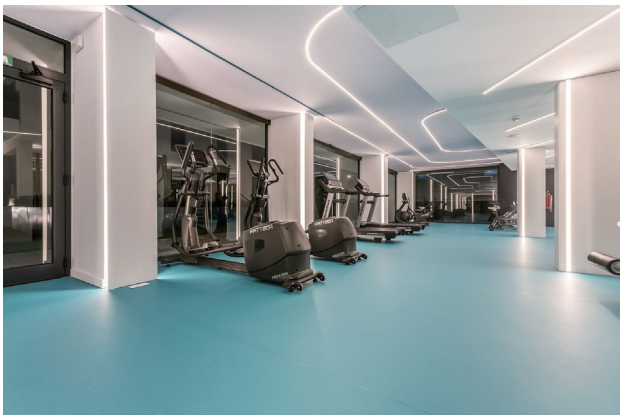
삼송물류센터의 상온 물류창고는 연면적 약 19,856평 내외로 지하 2층과 지상 8층 규모이며, CJ대한통운이 82% 수준에 대하여 임차 확약을 완료해 향후 임대차 관련 리스크가 낮다. 2023년 2월 준공 예정인 저온 물류창고는 연면적 약 12,589평 내외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서울 서북부 지역에 대한 1일 다배송 및 신선 배송이 가능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삼송물류센터는 3호선 지축역과 대중교통 기준 1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기에도 용이하다. 고양시가 포함된 수도권 북부권역은 최근 1년간 공실률이 0.0%로 견고한 임차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물류센터 개발이 부재해 안정적인 임대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투자
높은 수요를 유지하는 레지던스 자산

바르셀로나 코베가 레지던스

코베가(COBEGA) 레지던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북동부 산 마르티(Sant Marti) 지역에 위치하며, 도보 2분 거리에 지하철역(La Pau Station, 2개 호선) 및 버스정류장이 있어 바르셀로나 CBD까지 20분 이내의 접근할 수 있고, 바르셀로나의 3대 주요 도로인 Meridiana, Ronda Litoral, Gran Via와도 우수한 접근성을 갖고 있다.



4개 동으로 구성된 멀티패밀리(임대주택)인 코베가 레지던스는 총 75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1 Room 104세대, 2 Room 419세대, 3 Room 217세대, 4 Room 10세대) 세대별 최신식 가구 배치뿐만 아니라 최신식 헬스장, 마사지숍 및 네일숍, 업무용 공간(회의실 및 개인 사무실), 건물 전층 와이파이 가능, 임차인 전용 공용공간 및 매점, 인근에 슈퍼마켓(Mercadona) 입지, 컨시어지서비스, 스마트포인트(세탁·쇼핑·우편 등 간편 예약), 전기자전거·전기자동차 충전소, 자전거 세차·정비 공간, 수영장 등 임차인을 위한 최적의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스페인 및 바르셀로나 내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자산은 희소하며, 해당 자산에 대한 높은 수요로 본 자산은 임대 개시 5개월 만에 97% 임차되었다.

코베가 레지던스가 위치한 지역은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 여력이 충분하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해 현대화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음으로써 본 자산의 수요를 견고하게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개선되는 공제제도

행정공제회는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공제제도를 개선했습니다.

1. 한아름목돈예탁급여 최대 가입 한도 확대 : 5억 원 →7억 원
2.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 건수를 1건 → 다(多)건으로 확대
3. 퇴직급여를 한아름목돈예탁급여·분할지급퇴직급여로 전환 시 가입 단위를 100만 원 → 10원 단위 가능

1. 한아름목돈예탁 가입금액 확대

〈현행〉

- 신규가입 : 100만 원 ~ 5억 원

〈개선안〉

- 신규가입 : 100만 원 ~ 7억 원

2. 분할지급퇴직급여 다건 가입

〈현행〉

- <신 설>

〈개선안〉

- 다건 가입(최대 5건)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건별 해지 가능

3. 퇴직급여를 한아름목돈예탁·분할지급퇴직급여로 전환 시 가입단위 변경

〈현행〉

<분할지급퇴직급여>
- 가입단위 : 최소 1,000만 원 ~ 퇴직급여금 이내(100만 원 단위)

<한아름목돈예탁>
- 가입단위 : 최소 100만 원 ~ 퇴직급여금 이내(100만 원 단위)

〈개선안〉

<분할지급퇴직급여>
- 가입단위 : 최소 1,000만 원 ~ 퇴직급여금 이내(10원 단위)

<한아름목돈예탁>
- 가입단위 : 최소 100만 원 ~ 퇴직급여금 이내(10원 단위)

POBA 뉴스 Vol. 19

성공적인 자산 운용과 양질의 회원 서비스를 위한 행정공제회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행정공제회의 반가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1. 퇴직급여 · 분할지급퇴직급여 급여율 및 대여이자율 인상

행정공제회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급여율 및 대여이자율을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율 및 대여이자율 조정 현황(세전, 변동금리)

구분		현 행	조 정	시행일
급 여	퇴직급여	연 3.85%	연 4.69%	'23년 1월 1일
	분할지급퇴직급여	연 3.85%	연 4.69%	
대 여	생활안정자금대여	연 4.85%	연 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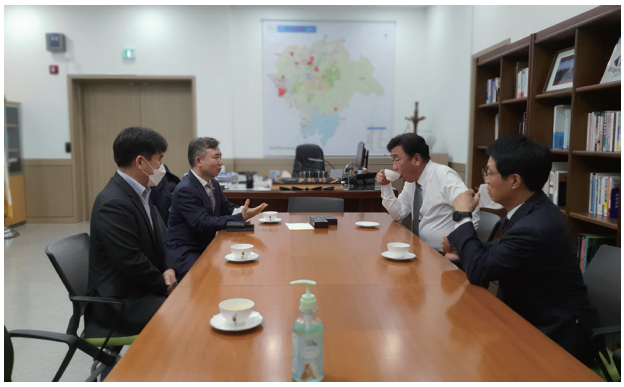
※ 현재 가입(또는 대여 이용) 중인 회원은 금리 조정일('23.1.1)부터 조정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상담 전화 ☏ **1577-7590**

2. 김장회 이사장 충청북도 현장 방문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이 지난 11월 22일(화) 충청북도를 방문했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내방을 통해 행정공제회 홍보 활동을 했으며, 도 대의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왼쪽부터)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이범석 청주시장, 오세동 청주부시장, 이성훈 행정공제회 기획조정실 실장(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 이사장은 이날 충청북도 지사 및 청주시장 내방, 충북도 대의원 간담회, 행정공제회 회원복지시설인 중원CC 현장 점검 등 원활한 대외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3. ‘POBA 드림 2탄’ 이벤트 성황리에 종료

행정공제회 회원들을 위한 생필품 구매지원 ‘POBA 드림 2탄’ 이벤트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총 1,920명으로 1차 1,569명, 2차 351명 회원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9월 26일(월)부터 10월 2일(일)까지 1차 생필품 응모를 받은 후 2차는 생활 가전으로 10월 17일(월)~10월 23일(일) 동안 응모를 받았습니다. 총 48,265명의 회원이 참여해 25:1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96%라는 높은 회원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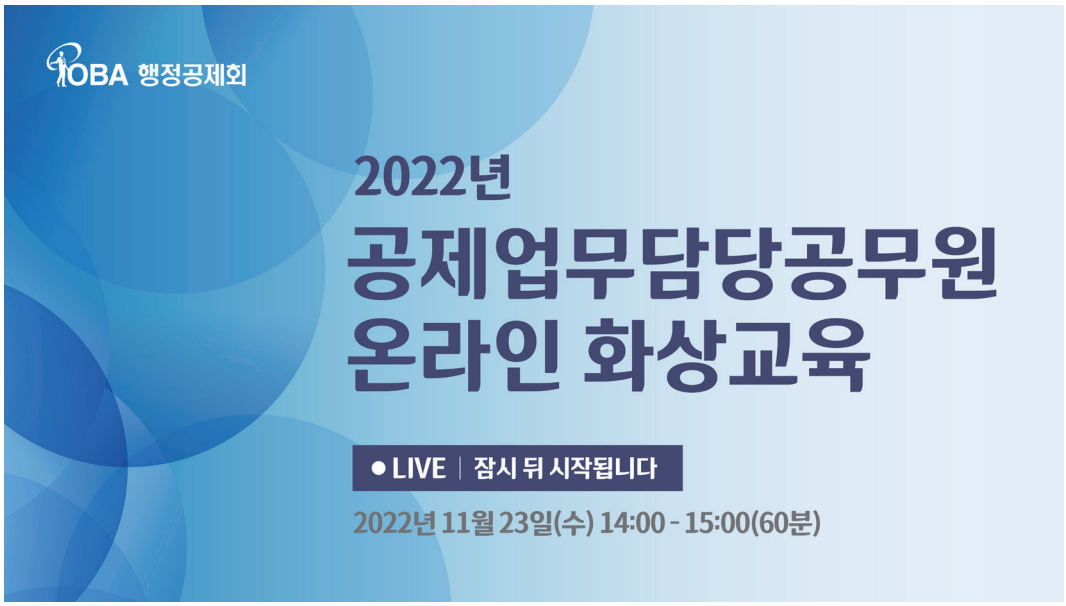
4. ‘POBA 드림 2탄’에 이어 ‘POBA 드림 3탄’ 이벤트 성황리에 종료

행정공제회가 회원들을 위해 준비한 문화생활 지원 ‘POBA 드림 3탄’ 이벤트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총 14,000명으로 영화 예매권, 전자책 구독권, 음원 구독권,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11월 8일(화)부터 11월 14일(월)까지 응모를 받았으며, 기간 동안 28,633명의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회원 만족도 조사 결과 95.5%가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5. 2022년도 공제 업무 담당 공무원 온라인 화상교육 개최

행정공제회는 지난 11월 공제업무 실무교육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시군구 공제업무담당공무원 온라인 화상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3일(목)에 진행된 온라인 화상교육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본회 경영 현황, 달라지는 공제제도, 공제업무 EDI 실무교육, '공제회에 바란다' 질의 응답 등 다양한 실무교육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교육 대상 233명 중 13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온라인 교육 운영 방식은 서로 실시간 대면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질의 응답 및 중간 퀴즈 등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으로 보완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가숲길에서 국가정원까지, 푸른 대전을 기대해주세요

**대전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교육 도시, 엑스포, 교통의 요지만으로 대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최근 도심을 둘러싼 '대전둘레산길'을 '국가숲길'로 지정받은 대전시!
푸른 대전으로 가는 새 출발대에 선 대전시청 산림녹지과 팀원들을 만나보았다.**

대전시청 산림녹지과 오동석 주무관, 조능연 팀장, 양지수 주무관, 이상신 주무관, 이선정 주무관, 송재용 팀장, 정유나 주무관, 김선화 주무관, 장병서 과장, 박소영 주무관, 이지은 주무관, 김태길 주무관, 명노용 주무관, 김호동 팀장, 배중필 팀장, 이재만 주무관(왼쪽부터)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걸 사는' 시대가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대한 바람 역시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졌다. 경제 가치와 연결되는 '역세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숲세권'이 되었고, 공원과 산책로가 얼마나 가까운지가 내 삶의 질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었다.

대전시청 산림녹지과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지난 9월 30일 새로운 모습을 갖춘 부서다. 공원녹지과가 도시공원과와 산림녹지과로 각각 분리된 상황에서 산림녹지과의 수장을 맡게 된 장병서 과장은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공원, 녹지, 산림에 대한 업무 수요가 증가하면서 분과가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정책팀, 정원휴양팀, 도시숲팀, 산림자원팀으로 나뉘어 있다. 각 팀은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 산림휴양, 산림재난 예방 업무를 비롯해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정원 및 산림휴양 전반에 대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전시의 숲과 나무가 뻗어나갈 길을 내고, 시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에 누구보다 빠르게, 큰 발자국을 내딛고 있다.

대전둘레산길이 국가숲길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전시의 노력에 화답하듯 지난 11월 초 대전시에는 낭보가 하나 날아들었다. 대전둘레산길이 국내 7번째로 '국가숲길'로 지정된 것이다. 지정을 신청한 지 4개월 만에 날아든 이 희소식에 산림자원과는 물론, 대전시청, 대전시민 모두 환호성을 올렸다.

"대전둘레산길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산길에 대해 이름을 명명한 곳입니다. 2004년에 시민들이 등산만 하던 길을 두고 최초로 '둘레'라는 말을 활용했지요. 대전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전둘레산길 조성사업에 들어갔고 이후 둘레길, 둘레산길이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둘레길에 관한 자부심이 장병서 과장의 얼굴에 깃든다.

시민과 대전시가 함께 이룬 푸른 대전

지역의 등산로가 '국가숲길'로 공식 지정을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리산둘레길이나 대관령숲길처럼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곳이 아닌 대전둘레산길을 국가숲길로 인정받기 위해 산림녹지과 직원들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지정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산림복지심의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나옵니다. 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산림자원과 역사적·문화적 가치, 이곳의 장점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해요. 무엇보다 도심에 위치한 대전둘레산길만의 특징, 장점을 최대한 어필했습니다."

장병서 과장의 말을 산림자원팀 김태길 주무관이 이어받는다. "대전둘레산길은 이미 국가숲길로 지정된 지리산둘레길, 대관령숲길

등과 비교해서 규모나 인지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과연 선정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고, 덕분에 대중교통 편의성, 역사·문화자원 측면 등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전시가 대전을 둘러싼 5대 명산 가꾸기 사업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이다. 아름다운 수목은 물론, 역사·유물·유적 등 풍성한 스토리와 콘텐츠로 큰 맥락을 만들어 온 지난 시간이 오늘날 국가숲길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둘레산길의 특장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대전둘레산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의 능선과 능선을 연결하여 완성한 숲길이라는 점과 그 숲길을 따라 걸으면서 도심 경관과 산림 경관을 동시에 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 중 한 곳이 바로 대전둘레산길이었기 때문에 산의 능선을 따라 14개의 산성과 수많은 망루, 보루가 분포해 있고 숲길 주변에는 태조 이성계의 태(胎)를 모신 태조태실과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 등 역사적 자산 또한 풍부합니다. 등산, 운동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대전 국가정원이다

장병서 과장은 무엇보다 국가숲길 지정을 관과 시민이 함께 이뤄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2004년 대전둘레산길잇기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그 멤버들이 최적의 노선을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전둘레산길은 대전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났고 둘레산길 걷기대회, 라디엔티어링대회, 전국 등산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면서 시민들을 자연스럽게 숲으로, 산길로 이끌어 낸 것이다. 산림녹지과 직원들 역시 수시로 둘레산길을 걸으면서 시민의 입장이 되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면서 애향심 또한 커졌다니 숲길이 불러온 나비효과는 실로 거대했다.

4구간 식장산

5구간 질현성 조망점

"대전둘레산길 12구간은 저마다 뚜렷한 개성과 특징을 갖고 있어요. 추천 코스는 식장산이 위치한 4구간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식장루에서 내려보는 대전의 야경이 일품이지요. 또 둘레산길 5구간 능선에 오르면 동쪽으로 대청호가 한가득 들어오고 9개 봉우리와 노루벌 벌판이 근사한 11구간 구봉산도 있습니다." 12개 코스 전부를 자랑할 기세인 장병서 과장과 김태길 주무관의 열띤 설명에 참석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다.

국가숲길 지정과 함께 산림녹지과는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관광객을 위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획,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손님들을 위해 산행 정보 제공은 물론, 직접 동반 산행을 인도하는 안내센터를 만들고, 장거리 산행객을 위한 숲속 야영장과 산장을 주요 숲길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전문 산행꾼들이 선정한 전국 12대 장거리 종주 산행길 중 하나인 보문산-만인산-식장산-계족산으로 이어지는 57km 종주길에는 산장도 만들 계획이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등산이 부담스러운 계층을 위해 무장애 노선과 급경사 구간 우회 노선도 개발 예정이다.

9구간 금수봉 전망대

"대전시는 2050년까지 1천 개의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람길숲, 미세먼지차단숲 사업 등을 확대하고 버스 정류장 녹화 사업, 자녀안심그린숲, 빈집활용 녹지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으로 2050년까지 1인당 도시림 면적을 지금보다 40%가량 늘릴 예정입니다."

장병서 과장은 또한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라며 맑고 푸른 대전시의 미래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숲길과 대전의 숲, 공원에는 시민 세금으로 만든 수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내 물건처럼 깨끗하게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방문객들의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감사와 부탁의 말을 전하는 대전시청 산림녹지과 사람들. 이들에게 대전의 숲과 길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긍심이자 대전의 미래를 바꿔 갈 빛나는 가치임이 분명해 보였다.

글 이경희 **사진** 307스튜디오 **대전둘레산길 사진 제공** 대전시청 산림녹지과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해요

**생면부지의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나누고 물리적 도움을 주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2006년부터 매월 봉사활동을 이어온 서산시청 우리두리봉사단에게
그 '나눔'은 우리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습관이자 동행의 길이다.**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동우 회원(서산시청 도로과), 김충현 회장(서산시청 토지정보과), 박기홍 회원(서산시청 토지정보과), 이소영 재무(서산시 석남동행정복지센터), 함미경 사무국장(서산시 수성동행정복지센터)

Q. 우리두리봉사단은 2006년 서산시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두리봉사단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충현 회장: 우리두리봉사단은 2006년 2월 사랑 나눔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6년 동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탄 배달 2~3회, 도배와 장판 교체 5회, 환경 정화 활동 2회 등을 하면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죠. 서산시청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게는 87명까지 소속되어 있었고, 현재는 회원 6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두리봉사단은 서산시청 직원들이 스스로 만든 봉사 모임이다.

Q. 매달 넷째 주에 정기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봉사활동 영역을 어떻게 정하고,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동우 회원: 처음 우리두리봉사단을 구성할 때는 요일을 정하지 않고 봉사활동 의뢰가 있을 때나 자체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단을 소집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부터 매달 넷째 주 토요일로 봉사 날짜를 정해놓고 사전에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연락해 봉사 대상지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일정 지역에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해 몇 년 전부터는 서산시 1365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하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영역은 환경정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도배 및 장판 교체, 소형 가구 구입 지원, 지붕 수리, 연탄 배달 등), 풍수해지역의 복구지원, 대규모 시민 집합행사 시 운영지원, 국립혈액원 보건소와 함께하는 헌혈 참여운동 등 아주 다양합니다. 회원당 한 달에 1만 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연말이 되면 에너지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 배달 봉사를 하시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웃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소영 재무: 요즘 세상에 누가 춥게 사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차가운 방에서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 집에서도 두꺼운 외투와 양말까지 신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지내셨으면 하는 우리두리봉사단 회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Q. 연탄 배달 봉사뿐 아니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도배나 장판 봉사, 헌혈운동 등도 매해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세요

박기홍 회원: 16년 동안 매달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기억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느라 지붕에 올라가서(물론 처음 올라가 봤죠!) 혹여 무너질까 덜덜 떨리는 다리로 버티면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래에서 던져주는 김밥으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집 안이 쓰레기와 주워온 물건으로 가득 차서 간신히 사람 하나 누울 정도의 방을 치워드린 적도 있는데, 이튿날 주인 할머니께서 수확해서 말려놓은 돼지감자 보따리가 없어졌다고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회원들이 다시 나와서 찾아드린 적도 있었죠. 물론 봉사활동을 마칠 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커피와 수박 등을 준비해주시면 항상 좀 더 잘 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과 뿌듯한 마음이 동시에 들곤 했습니다.

Q. 헌혈운동에 앞장서 대한적십자사에서 감사패도 받으셨네요. 서산에 헌혈센터 설치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김충현 회장: 2014년과 2021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우리두리봉사단에서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13일에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두리봉사단은 서산시청 내에서 실시하는 헌혈 차량에 헌혈 증서 기부함을 비치해 헌혈자들로부터 헌혈 증서 기부를 받아 모아두었다가 관내 헌혈 증서가 다량으로 필요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가족에게 30~40매 정도를 전달해 드린 적도 네 차례 있네요.

헌혈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혈액원에 건의해보았지만, 헌혈 인구가 1년에 1만 명 이상 되어야 하나 서산시는 7천 명 정도여서 아직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혈 인구가 늘어 충족 요건이 되면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정화 봉사를 하는 우리두리봉사단

Q.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봉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나요?

함미경 사무국장: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실내 봉사활동은 못했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4인 1조로 환경 정화 활동 위주로 진행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 정화 활동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한 없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Q. 회원들에게 '봉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김충현 회장: 봉사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정화 작업에 나서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겨울철 연탄 배달 봉사를 마치면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느끼거든요.

이근우 회원: 봉사는 '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행동이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나아가 제 마음에서 공허함과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비워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의미 있는 일인 거죠. 또한 봉사를 통해 재능과 시간을 기부한다고 볼 수 있지만, 봉사를 준비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얻고 주변에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채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Q. 2023년 1월엔 연탄 배달 봉사를 다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두리봉사단의 더 많은 일정이 궁금합니다

함미경 사무국장: 현재 우리두리봉사단 운영상 문제점은 신규 회원이 많지 않고, 기존 회원들이 하나둘 퇴직하다 보니 집수리 사업이나 도배 및 장판 교체 사업 추진 시 기술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규 회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해 역사와 전통을 토대로 더욱더 참된 봉사단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두리봉사단에서는 더위에 힘들어하시는 저소득가정 50가구에 선풍기를 직접 조립해 전달하고, 냉장고와 TV, 책상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300만 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보건소에 기증하고, 강원·경북 산불 지역에 350만 원 상당의 수건을 구입해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두리봉사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명효 **사진** 박준석

칼칼하고 시원한 맛, 칼국수를 찾아서

**핫팩도 패딩도 좋지만 겨울에 무엇보다 그리운 건 뜨끈한 음식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칼국수는 특히 겨울에 사랑을 받는다. 한 그릇 뚝딱 해치우면 추위를 이겨낼 힘을 얻는 음식,
대전의 명물로 꼽히는 칼국수를 찾아 기차에 몸을 실어 보았다.**

칼국수는 서민들이 즐겨 먹는 우리의 대표 음식 중 하나다. 북적이는 장날이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펄펄 끓여 낸 칼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한 끼를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없이 친숙하다. 현대를 사는 도시인의 모습 또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값싸고 빨리 나오며 허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칼국수의 인기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칼국수는 조선 시대의 한글 조리서 <규곤시의방>에 처음 등장했다. 이때 이름은 '절면(切麵)'이었다. 지금과 다른 점은 당시 절면은 메밀가루가 주재료였고 밀가루는 연결재로 쓰였다는 것이다. 당시 밀은 귀한 식재료였기 때문. 이렇게 귀한 칼국수는 어떤 여정을 거쳐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일상식이 된 것일까?

구호물자 밀가루 덕분에 대중 음식으로

칼국수는 밀가루를 반죽해 차진 덩어리로 만들어 밀대로 얇게 밀고, 이를 가늘게 채 썰어 면발을 만든 뒤 국물에 넣어 끓여 낸 음식이다. 이때 국물과 고명을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에 따라 해물칼국수, 닭칼국수, 사골칼국수, 멸치칼국수, 팥칼국수 등으로 나뉜다.

현대의 칼국수 조리법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34년 이석만이 쓴 요리책 <간편조선요리제법>을 통해서였다. 이 책은 근대에 접어들어 간단하고 편리하며 경제성 있는 대중 요리를 보급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칼국수는 그 간단한 조리법과 맛으로 이미 서민이 즐겨 찾는 음식이 됐음을 증명한다.

칼국수가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음식이 된 가장 큰 계기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구호물자로 밀가루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여름 한철 음식이었던 칼국수를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국민 음식으로 거듭난 것이다.

칼국수가 여름 음식이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귀한 밀을 수확하던 시기가 음력 6월 중순 즈음이었기 때문에 이때 잠깐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던 것이다. 칼국수의 고명이나 함께 끓이는 재료로 감자, 애호박이 들어갔던 것도 수확철이 겹쳤기 때문이었다.

고속철도를 타고 1시간 정도만 달리면 대전역에 닿는다.

칼국수를 먹으려면 대전으로!

칼국수는 전국 어디서나 사랑받는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음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전의 명물이 칼국수라는 사실에 딱히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칼국수가 대전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은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대전의 지리적 특성이다.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서 철도 운송의 거점 도시인 대전은 과거부터 구호물자와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1960~1970년대 대규모 간척 사업에 동원된 근로자들에게 돈 대신 밀가루를 지급하면서 대전은 자연스럽게 밀가루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대전역의 가락국수부터 시작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퍼져 나간 칼국숫집들은 노동자와 주머니 가벼운 서민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더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기 위한 노포(老鋪)들의 노력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올겨울, 고속철도를 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대전으로 칼국수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대전시 칼국수 맛집을 소개합니다

사골과 멸치로 우려낸 진한 국물맛!
신도칼국수

오래된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선 신도칼국수. 오랜 역사가 배어 있는 실내 덕분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듯하다. 1961년 문을 열었으니 대전 칼국수의 터줏대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역 인근에 자리를 잡고, 푸짐하면서도 저렴한 값으로 사랑받았던 신도칼국수가 지금까지 명성을 이어오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그 맛 때문이다. 칼국수 한 그릇을 시키면 넘칠 듯 담겨 나오는 국물과 면발, 그 위에는 들깻가루가 눈처럼 한가득 뿌려져 있다. 뽀얗고 진한 국물은 맛보지 않아도 절로 군침이 넘어가게 한다. 별다른 고명 없이도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칼국수는 오랜만이다.

신도칼국수는 일일이 손으로 손질한 최상급 멸치와 사골뼈를 푹 끓여서 국물을 우린다. 맛이 깊고 진하며 부드러워서 아이들도 잘 먹는다. “일본의 라멘은 돼지등뼈로 끓이지만 우리는 사골뼈를 쓴다. 국물 맛이 잡내 없이 깔끔해서 일본 손님도 많이 찾아온다”라는 박종배 사장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반찬으로는 김치와 단무지가 나오고, 그 옆에는 직접 만든 지고추가 양념통에 담겨 있다. 먼저 담백하게 칼국수를 즐기고 절반쯤 먹으면 지고추를 넣어서 먹어보자. 삭은 고추에 갖은양념을 더해 만든 지고추를 넣으면 칼국수의 풍미가 확 달라진다. 30원이었던 칼국수 값이 어느덧 6천 원까지 올랐지만 변함없이 서민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신도칼국수. 진한 국물 맛에서 그 진심까지 느껴진다면 과장일까?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825번길 11
전화 042-253-6799
영업시간 9시 30분~20시
메뉴 칼국수 6,000원, 두루치기 18,000원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
오씨칼국수

오씨칼국수는 대기가 기본인 맛집이다. 간판에서부터 노포의 느낌이 물씬 나는 이곳은 물총 조개를 주재료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전 시민과 외지인에게 맛집으로 사랑받아왔다.

2인분을 주문하면 4인분이 아닌가 싶게 커다란 그릇에 쑥갓과 국산 물총 조개, 면과 국물이 가득 담겨 나오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침이 꿀꺽 넘어간다. 가게에서 직접 반죽해 만드는 울퉁불퉁한 칼국수 면발은 굵기도, 결도 제멋대로지만 쫄깃한 맛을 자랑하면서 입안에서 탱글탱글 맴돈다. 조개 육수를 기본으로 한 국물은 한번 떠먹으면 숟갈질을 멈출 수 없을 만큼 진하고 시원하다. 물총 조개 역시 촉촉하고 통통한 것이 자꾸 손이 간다.

식당에서 직접 담그는 김치 역시 인기 만점이다. 매장 내부에는 김치가 매우니 조금씩 자주 꺼내 먹으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지만 이 김치의 매운맛 때문에 여길 찾는다는 단골도 많을 만큼 큰 사랑을 받는 또 하나의 메인 메뉴다. '맵찔이'들은 울고 돌아갈 만큼 강렬하게 얼얼한 맛.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는 마성의 매운맛을 자랑하는 김치는 뽀얀 칼국수와 함께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 한 끼 식사로, 술안주로 손색이 없는 맛과 메뉴를 자랑하는 오씨칼국수, 대전에 오면 꼭 한번 들러 맛보시라.

주소 대전시 동구 옛신탄진로 13
전화 042-627-9972
영업시간 11시~21시(월요일 휴무)
메뉴 칼국수 8,000원, 물총 13,000원

글 이경희 **사진** 307스튜디오

이 계절의 감칠맛, 과메기

찬바람 불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겨울 별미, 과메기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여러 성인병과 노화 예방에 효험을 보인다. 그 감칠맛을 더욱 끌어올린 과메기 조림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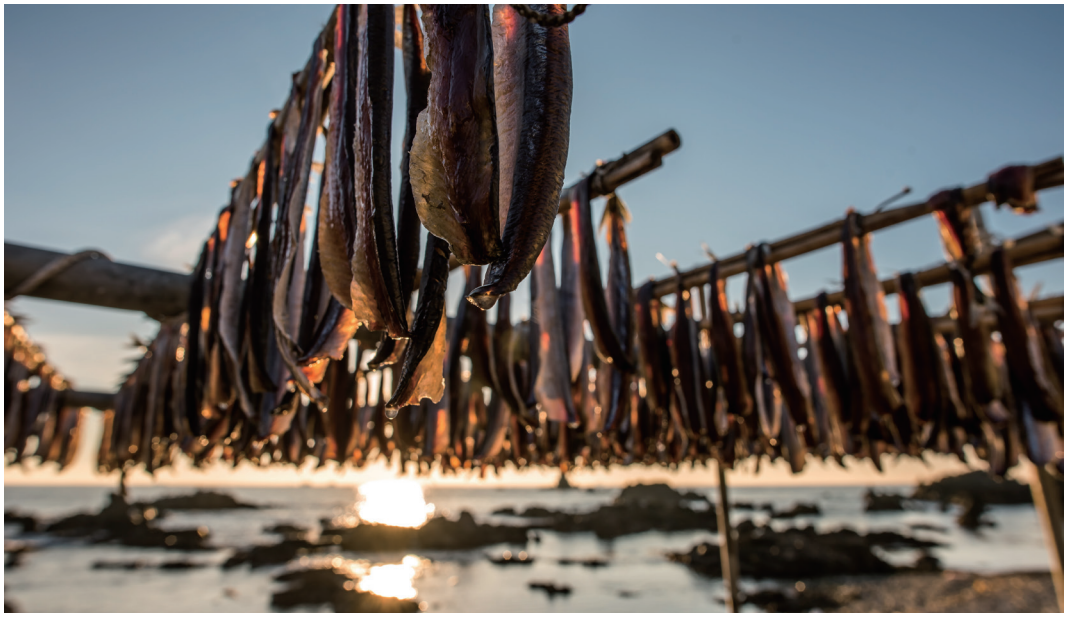
바닷바람 부는 동해를 바라보는 덕장에서 꾸덕꾸덕하게 건조된 과메기의 쫀득한 식감과 그 고소하면서도 깔끔한 맛! '겨울 별미' 과메기는 날이 추워지면서 움츠러드는 몸과 입맛을 살아나게 해준다. 요즘이야 백화점과 마트에서 수시로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제철은 찬 바람 부는 겨울이다.

바닷바람이 만들어낸 쫀득한 식감

과메기의 옛말은 '관목어(貫目魚)'다. '생선의 눈을 꿰다'는 뜻을 가진 관목어는 '눈을 꿰어 말린 생선' 즉 건어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 관목어의 '목'이 포항 지역 말로 '메기'를 뜻해서 '관메기'로 불리다가 세월을 거치며 지금의 과메기로 정착했다고 한다. 요즘도 과메기는 포항 구룡포 일대에서 80% 이상 생산되고 있는 대단한 지역 특산품이다.

예부터 과메기는 동해에 지천으로 널렸던 청어를 건조한 저장성 음식이었다. 냉수성 어종인 청어는 겨울철에 맛이 가장 좋았다. 어민들은 제철 청어를 잡아 바닷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며 독특한 식감을 가진 과메기를 생산했다. 오래 두고 먹기 위해 건조했던 과메기는 서민들의 밥상은 물론, 그 독특한 맛과 향 때문에 임금님에게 진상되기도 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수군이 청어를 잡아 군량미에 보탰다'고 적혀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포항 영일만은 매년 겨울마다 청어가 잡히는데, 처음 잡아 임금에게 진헌한 후 모든 읍에서 비로소 잡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전한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근해에서 청어 어획량이 급격히 줄면서 과메기의 대세 어종은 꽁치로 바뀌었다. 보통 수분 함유량



이 40% 이하가 되도록 말리는데, 덩치 큰 청어는 보름 이상 건조해야 했던 것에 비해 비슷한 맛을 내는 꽁치는 일주일이면 과메기로 먹을 수 있었으니 어민들도 환영했다. 요즘은 옛날처럼 꽁치를 통째로 말리지 않고, 반을 갈라 말리기에 시간은 더욱 단축됐다.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비릿한 맛이 적고 쫀득한 식감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요즘 과메기는 수분 함량이 25~30% 정도 되는 것이 인기가 많다.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흐물흐물하지 않고 약간 탄력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살결이 선명하고, 기름칠한 것처럼 반짝이는 과메기를 고르면 큰 실패가 없다고 한다. 당연히 맛은 덕장이 바다 근처인 것이 좋다. 적당히 염분을 머금은 찬바람과 습도, 온도 등이 과메기의 맛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눈 건강과 혈관 건강, 노화 예방까지

과메기는 지방과 단백질, 핵산, 비타민, 무기질 등의 DHA와 EPA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뇌세포 활성화, 눈 건강, 성인병 예방,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로 꼽힌다. 덕장에서 숙성되는 동안 생성된 핵산과 오메가3 등의 증가로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숙취 해소에도 좋다.

물론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통풍을 일으키는 퓨린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돼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섭취를 금하는 것이 좋다. 또 꽁치의 오메가3는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므로 출혈성 질환, 고혈압 등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

밥도둑이 되었다, 과메기 조림

허영만 작가는 만화 <식객>에서 초고추장, 된장과 함께 먹는 과메기를 '술 한잔하고 싶게 만드는 절대적 별미'로 소개했다. 하지만 과메기를 즐기는 법은 다채롭다. 감칠맛을 끌어올린 과메기 조림은 이 계절의 밥도둑이 되기에 충분하다.

주재료

과메기 150g, 무 200g, 양파 1/2개, 대파 1/2대,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양념 재료

고춧가루 3T, 고추장 1.5T, 다진 마늘 2T, 다진 생강 1/2T, 맛술 2T, 설탕 3T, 멸치액젓 3T, 진간장 3T, 육수 100ml

01 과메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무는 1cm 두께로 큼직하게 썬다.

02 양념 재료를 모두 섞고, 섞은 양념의 절반을 과메기와 버무린다.

03 냄비에 무와 남은 양념을 모두 넣고, 중약불에 5분간 끓인다.

04 이어서 양파를 넣고, 양파가 반쯤 익으면 과메기와 남은 모든 재료를 넣는다.

05 5분간 더 끓이면 '겨울의 밥도둑' 과메기 조림이 완성된다.

글 정명효 **사진** 307스튜디오 **요리** 강혜정(온기쿠킹스튜디오)

2023년을 맞으며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근대 한글 연구소> 등의 전시 소식과 영화 <영웅>, <아바타: 물의 길> 그리고 뮤지컬 <용의자 X의 헌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건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EXHIBITION

<전시 배달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진행 중인 <전시 배달부>는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배달' 문화를 미술과 미술관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전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 광범위하게 확장된 물류 환경과 미술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관람객을 전시 배달부로 설정하여 미술과 미술관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기간 | 2022년 8월 24일(수)~2023년 1월 29일(일)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관람료 | 무료

출처/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

EXHIBITION

<근대 한글 연구소>

2022년 4회째를 맞은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 실험 프로젝트. 근대 한글의 변화상을 주제로 근대 한글의 변천사를 만나볼 수 있다. 근대 한글을 소재로 동서말글연구실, 한글맵시연구실, 우리소리실험실, 한글출판연구실 등 4개의 연구실에서 시각, 공예, 음악 등의 분야에 걸친 다양한 예술 실험을 경험할 수 있다. 국내 전시 이후에는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에서도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기간 | 2022년 10월 7일(금)~2023년 1월 29일(일)
장소 |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실(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관람료 | 무료

출처/ 전남도립미술관 홈페이지

ART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특별전

인간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특별전이 광양에서 열리고 있다.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기념하는 이 전시는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과 조르주 루오 재단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조르주 루오(1871~1958)의 대표적인 판화 작품 <미제레레>를 비롯해 200여 점의 유화·판화 작품을 선보인다. 루오의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 표현주의 작가들의 대표작 50여 점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기간 | 2022년 10월 6일(목)~2023년 1월 29일(일)
장소 | 전남도립미술관
관람료 | 15,000원

출처/ 신스웨이브 SNS

MUSICAL
<용의자 X의 헌신>

오는 1월까지 만나볼 수 있는 <용의자 X의 헌신>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일본에서는 2008년 영화화되었고, 국내에서는 2012년 <용의자 X>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었다. 천재 수학자 이시가미와 사건을 파헤치는 천재 물리학자인 유카와 사이의 첨예한 두뇌 싸움을 다뤘다. 이시가미 역에는 최재웅, 김종구, 조성윤 배우가 출연하고, 유카와 역에는 이지훈, 박민성, 오종혁 배우가 열연하고 있다.

기간 | 2022년 11월 26일(토)~2023년 1월 29일(일)
장소 | 한전아트센터
관람료 | VIP석 110,000원 R석 88,000원 S석 66,000원 A석 33,000원

출처/ 네이버 영화

MOVIE
<영웅>

12월 21일 개봉한 영화 <영웅>은 동명의 창작 뮤지컬인 <영웅>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이다.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담은 이야기를 그렸다. 좀처럼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뮤지컬 영화라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을 모았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정성화를 비롯해 김고은, 나문희, 조재윤 배우 등이 총출동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년 만에 개봉해 관객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과 자긍심을 전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영화

MOVIE

<아바타: 물의 길>

국내에서만 1,360만 관객을 동원한 <아바타>의 후속편 <아바타: 물의 길>이 12월 14일 전 세계 최초 개봉했다. 북미보다 이틀 빠른 개봉이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13년 만에 내놓은 이번 작품에서는 아바타 시리즈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1편이 판도라 행성으로 간 인간 '제이크 설리'와 원주민 나비족 간의 대립을 그렸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가 이룬 가족이 바다로 무대를 옮기면서 겪게 되는 여정을 그렸다.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작품상과 감독상 부문 후보에도 올랐다.

글 김성식

세상의 모든 따뜻함, 손뜨개

**겨울이 되면 이랫목에 앉아 쉴 새 없이 뜨개질을 하던 엄마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손끝에서 완성되던 목도리며 스웨터도 함께. 손뜨개로 만든 것들이 따뜻한 것은 단순히 털실 때문이 아니다.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덕분이다.**

시간과 정성을 담아 나만의 것을 만들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의 의미는 무엇보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것을 만든다는 점이다. 손뜨개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실, 똑같은 바늘을 쓰더라도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나 수준에 따라 완성도는 천차만별. 특히 성격이 급한 사람의 경우 코가 빠지거나 모양이 비뚤어질 때가 많다. 하지만 이 역시 걱정할 일은 아니다. 뜨개질을 하다 실수를 했다면, 실을 풀어서 언제든 다시 뜰 수 있으니까. 손뜨개로 완성되는 것들은 종류가 끝이 없다. 작은 장갑이나 양말, 모자부터 스웨터, 조끼, 원피스는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에 이불까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에 시간과 정성이 담겨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오래전부터 봉사 단체에서 아프리카 신생아를 위한 털모자 보내기 봉사를 하던 것 역시 이런 정성 어린 마음들을 모으는 일이 아니었을까.

손뜨개도 트랜드가 있다

손뜨개는 아주 오래된 취미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실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기본. 뜨개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실 두께의 다양화는 초보자도 쉽게 손뜨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최근에는 너무 두꺼워서 바늘이 아닌 손으로만 뜨개질이 가능한 '자이언트 얀'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다. 색깔도 마찬가지. 한때는 색색의 비비드 톤이 유행하기도 하고, 단색으로 만드는 모노톤 작품이 트렌드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식이 함께 유행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취향에 맞춰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 뜨개 관련 유튜브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아서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자.

처음부터 배우는 뜨개질 Step by step

Step 1 실 고르기

뜨개실은 컬러뿐만 아니라 소재도 다양하다. 또한 같은 소재라도 가공 단계에서 실마다 다른 느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실 몇 가지를 소개한다.

기본 털실 : 양모로 만드는 실로 원모와 비슷한 두께 혹은 가는 스타일의 제품이 출시된다.
모헤어 : 양모 중에서 표면에 털이 길게 나온 느낌의 실을 뜻한다.
슬라브 : 실 사이사이에 요철 느낌으로 두꺼워지는 부분이 있는 실을 의미한다.
아크릴사 : 흡수성이 없는 제품으로 최근 수세미 뜨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트위드실 : 두 가지 색의 털을 한 번에 뽑아내서 독특한 느낌을 표현한다.
밍크실 : 밍크 같은 느낌의 털이 붙어 있어 부드러운 페이크 퍼 감촉을 살릴 수 있다.

Step 2 바늘 고르기

바느질은 대표적으로 대바늘 뜨기, 코바늘 뜨기, 그리고 아프간 뜨기 3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이 3가지 방법은 각각 사용하는 바늘이 다르다. 실을 선택한 후 권장 호수에 맞춰 바늘을 선택하도록 한다.

대바늘 뜨기 : 기본적으로는 두 개의 막대 모양 바늘을 이용해서 뜨는 방법으로 2개의 바늘이 실리콘 느낌의 튜브로 연결된 제품도 있다. 대바늘 뜨기가 끝난 후에는 바늘처럼 챙긴 철침으로 마무리를 한다.
코바늘 뜨기 : 대바늘 뜨기와 달리 바늘 한쪽 끝에 고리 모양이 있는 코바늘 하나만을 사용해 뜨개질을 할 수 있다. 실과 바늘의 두께에 따라 레이스 뜨기도 가능하다.
아프간 뜨기 : 대바늘 뜨기와 코바늘 뜨기를 혼합시킨 느낌. 일반 뜨개보다 신축성이 덜하고 짜임이 탄탄한 것이 특징이다.

Step 2 뜨개질 무늬

모든 뜨개질은 코를 잡은 다음 기본이 되는 겉 뜨기와 안 뜨기를 한다. 이것만 잘 알고 있다면 다른 무늬도 쉽게 만들 수 있다.

겉 뜨기 : 떠야 할 실을 바늘의 바깥쪽에 두고 잡아 둔 코에 반대쪽 바늘을 찔러 넣고 바늘과 바늘 사이에 감아 놓은 실을 돌려 감은 다음 바늘을 안쪽으로 빼내는 기법이다.
안 뜨기 : 코를 잡은 다음 실 자락을 엄지와 검지에 걸고 겉에서부터 안쪽으로 바늘을 통과시킨 후 엄지손가락을 빼내 완성한다.
가터 뜨기 : 모든 단계에서 코와 단을 겉 뜨기만으로 계속 뜬 형태로 앞뒤가 모두 물결무늬처럼 나타난다.
메리야스 뜨기 : 뜨개질을 할 때 겉 뜨기와 안 뜨기를 1단씩 번갈아 떠서 모양을 만드는 것. 완성을 하면 앞면은 Y자 모양이 된다.
고무 뜨기 : 메리야스 뜨기와 달리 겉 뜨기와 안 뜨기를 1코씩 번갈아 뜨는 기법. 완성하면 앞뒷면이 같은 형태가 되며 신축성이 좋다. 겉 뜨기와 안 뜨기를 몇 번 만에 번갈아 하는지에 따라 모양이 다양해진다.
멍석 뜨기 : 겉 뜨기와 안 뜨기를 번갈아 하는데 각 줄마다 순서를 달리하는 기법이다. 전체 코의 수가 짝수일 때는 앞면과 뒷면을 반대로, 홀수면 똑같은 순서로 뜨개질해야 한다.

초보자라면 유튜브로 배우세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뜨개질 실을 판매하는 곳에서 뜨개질 강의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동네에서 실 파는 곳을 찾기조차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긴 이르다. 동네 대신,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유튜브가 있다.

바늘이야기 김대리 @banulstory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국내 최고 뜨개질 실과 용품 인터넷 쇼핑몰 '송영예의 바늘 이야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지금은 창업자였던 송영예 씨의 딸인 김대리가 어머니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다양한 뜨개질 방법을 알려준다.

릴리안뜨개질 @lilianknittingcrochet4666

뜨개질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릴리안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자신은 독학으로 뜨개질을 배웠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손쉽게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짧은 영상을 통해 손뜨개를 더욱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글 배수은

환테크를 아시나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의 재테크 PART 2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 여기저기서 '경제 침체'를 암시하는 적신호가 깜빡인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 그중 하나가 '환테크'다.

'환율, 달러 인덱스, 파생상품, KIKO.'

이름만 들어도 갑자기 도망치고 싶어지는 용어들이다. 많은 분이 금융 용어를 생소하게 느끼지만 그중에서도 최고봉은 단연 외환 관련 용어들이다. 일단 달러나 환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왠지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고 어렵고 복잡한 얘기일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아니다. 환율, 달러 인덱스 같은 용어들이 어떤 것인지, 내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면 '금융 문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구 반대편에서 쓰는 달러 환율이 폭등한 것이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겠냐 싶겠지만 사실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단 달러 환율이 폭등하면 수입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가 많이 하는 '해외 직구'의 물품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다. 반면 수출업체는 원화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다른 나라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생겨 웃게 될지도 모른다. 수출업체에 투자한 주주들은 더 나은 매출로 달러 환율 폭등의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외환시장에 대해 알고 싶지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굳이 찾아보지 않으셨던 분들, 달러 환율과 내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 더 나아가 환율로 '환테크'를 하여 조금이라도 수익을 늘려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환율이 뭐길래?

환율이란 사전적 정의로는 '한 통화와 다른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 그러나 '비율'이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함 때문에 환율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환율이란 다른 나라 통화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즉, 달러 환율이란 1달러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가격이다. 엔이나 유로도 마찬가지. 모든 외국 통화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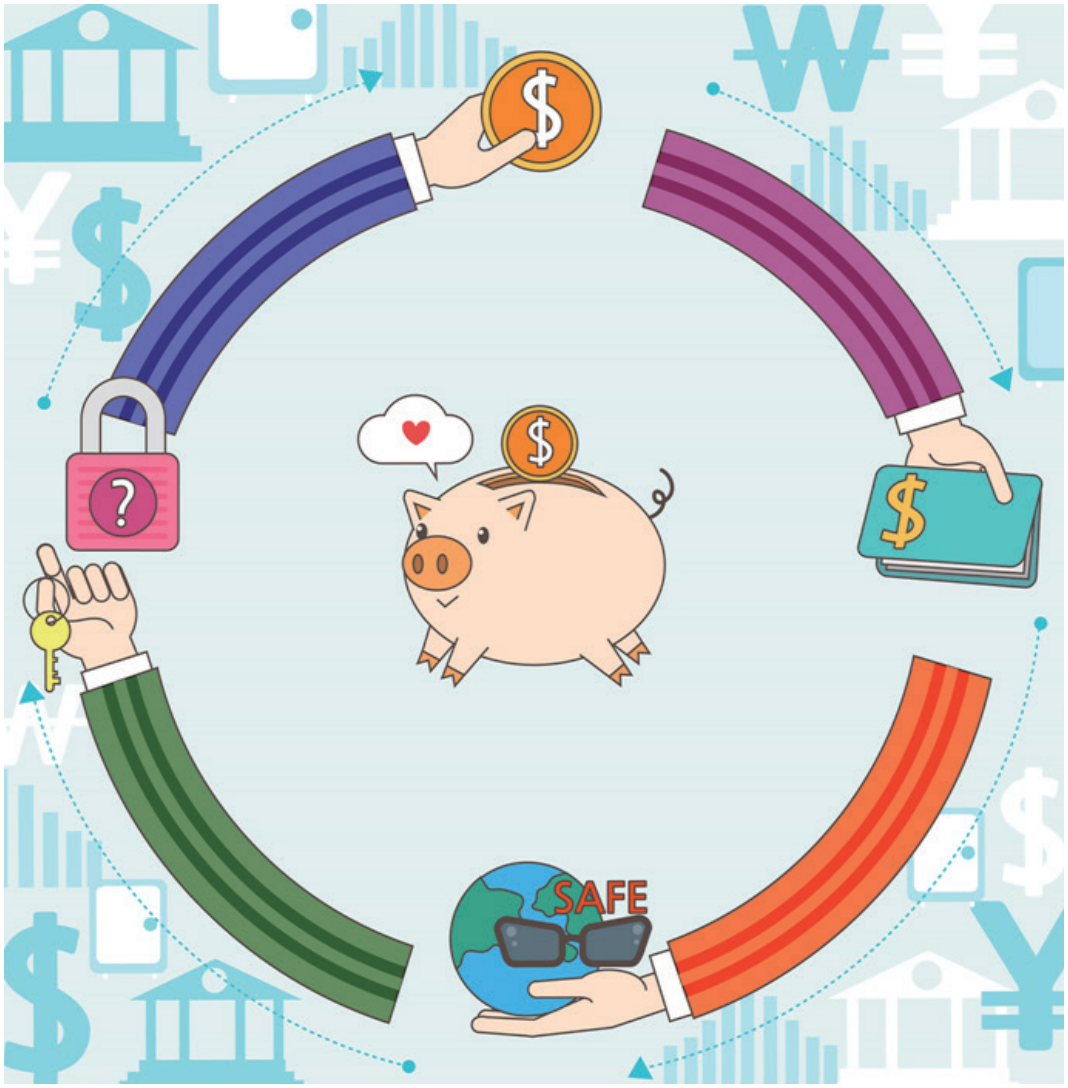
그럼 달러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에서 1달러에 1,200원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를 어려운 말로 '원화 평가 절하(원화의 가치가 떨어짐)' 또는 '달러 평가 절상(달러의 가치가 올라감)'이라고 표현한다. 원화가 평가 절하 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씩 오를 때마다 소비자물가가 0.06P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개인과 가계 측면에서는 수입 자재와 기름값(한국은 기름을 수입하므로) 등이 올라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물가가 높아지면 가계들은 보통 소비를 줄인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떨까? 기업은 원자재, 부품 값이 상승하지만 수출 측면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생겨 국가의 전체적인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이렇게 개선된 경상수지는 다시 원/달러 환율을 내리게 하는(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

환율만 잘 따라가도 돈 번다?

환율을 왜 잘 알아야 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환율을 사고팔아 돈을 버는 것을 '환테크'라고 지칭한다. 환테크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과세'라는 점이다. 동네 은행에서 예금을 해도 일반적으로 15.4%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아야 하고, 부동산에 투자해도 양도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환율 차이로 돈을 버는 환테크는 100% 비과세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투자 방법보다 뛰어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환율 우대'를 많이 해주는 은행 또는 증권사를 찾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환율 우대 많이 받는 외화 통장'이라고 검색하면 최신 기준으로 환율 우대를 많이 해주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외화 통장을 추천해준다.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외화 통장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 더욱 간편하다.
은행이나 증권사는 주요국 통화(보통 달러, 엔, 유로)에 대해서는 40%에서 95%까지 우대를 해준다. 여기서 우대를 해준다는 의미는 은행이 가져가는 마진을 최대한 줄여서 고객에게 '매매기준율'에 가깝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내가 개설한 외화 통장의 환율 우대가 80%~90% 정도라면 꽤 괜찮은 외화 통장 우대 혜택이라 볼 수 있다.



외화 통장 개설을 완료했다면 환테크를 하기 위한 거의 모든 준비는 끝난 셈이다. 이제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통화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것만이 남아있다. 필자의 경우 달러화, 엔화, 유로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요국 통화로 투자를 하면 환율이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오지 않아도 유동성 위험(원할 때 팔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극히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국 통화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환율 우대의 폭이 다른 통화보다 커서 이익이 더 커진다.

환율 추이와 달러 인덱스에 주목

만약 달러 환테크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두 가지는 확인해야 한다. 환율 추이와 달러인덱스가 바로 그것이다. 환율 추이를 볼 수 있게 '인베스팅 닷컴' 같은 앱에 원-달러 환율이라고 검색해보자. 그러면 1달, 1년, 5년, 10년 등의 원/달러 환율의 가격 추이가 나온다. 다음 날 환율을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환율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1년, 5년 등의 추이 이내에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낮아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반대로 1년, 5년 이내로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달러화의 가치 상승) 외화 통장의 달러화를 분할로 매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환율 추이와 분할 매수/매도로 안전 마진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 봐야 할 사항은 '달러 인덱스'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6개의 세계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달러 인덱스의 추이가 평균 대비 지나치게 높으면 달러 매수에 신중해야 할 타이밍이다.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지나치게 낮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서서히 분할로 달러를 매수해야 할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주요국 통화와 기축 통화인 달러는 저평가와 고평가를 반복하며 움직이기 때문이다.

'오하마의 현인'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다. "오늘날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가장 적합한 재테크인 환테크로 이익이라는 열매를 취하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분야에 도전한 대가를 얻는 것이다. 미래의 당신이 시원한 나무 그늘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당신이 반드시 환투자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환테크에 도전해보시길 추천한다.

+ 이 글은 투자 시점, 투자 외환에 대한 추천 글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글 썬바라미(경제 블로거)

가족의 힘

‘젊음은 사라지고, 사랑도 시들어 가고, 우정이라는 잎새 역시 떨어져 나가지만, 어머니의 은밀한 바람은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는다.’ 가족의 힘은 단단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다.

<샘터>라는 월간 잡지가 있다. 1970년 4월에 창간되었고, 여전히 교양 잡지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니 대단한 잡지임이 분명하다. 몇 년 전 폐간의 위기까지 갔지만 <샘터>를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의 도움으로 여전히 발행되어 독자들에게 재미와 교양까지 두루 즐거움을 주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잔잔히 담겨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잡지이면서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내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과 눈물을 담아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최장기 연재소설인 최인호 작가의 소설 <가족>도 바로 이 <샘터>에 약 35년 동안 실렸다. 최인호 작가는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우리네 가족 누구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재미있고, 훈훈하게, 때론 가슴이 찡하고 따뜻하게 담아냈다. <가족>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아들 ‘도단이’는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다(도단이가 어찌 지내는지 궁금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삶의 모진 바람에 휘둘리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직접 소식을 전해 듣지는 못하고 있다).

평범한 우리네 가족들의 이야기, 최인호 작가의 <가족>만큼 가족 이야기를 진하게 담아낸 책을 나는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 그저 피할 수 없는 인연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사는 사람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누군가 먼저 유명을 달리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연락하고, 얼굴 보고,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운명적 관계의 사람들.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가장 자연에 가까운 원초적인 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 그저 긴 말이 필요 없이 눈빛만으로도 헤아려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네 가족이다.

얼마 전 가까운 지인과의 점심 식사 중에 들은 이야기다. 참고로 지인은 올해 환갑을 훌쩍 넘긴 60대 중반이다. 정확히 96세인 지인의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직은 큰 병 없이 식사도 잘하고, 그럭저럭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한다. 집에 함께 모실 형편이 못 되어 매우 죄송한 마음에 주말마다 식구들과 찾아뵙고 있는데, 뵙게 되면 그 어머니께서는 항상 환갑 넘은 아들에게 건강 잘 챙기라고 걱정 어린 당부를 하고, 이제 노년이라 불러도 전혀 손색없는 그 아들 잘 되라고 매일 아침 한결같이 기도하고 계신단다. 함께 점심을 먹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왠지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환갑이 훌쩍 넘은 아들의 건강을 챙기며,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길 기도하시는 96세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말 끝에 지인 또한 설렁탕 국물이 너무 뜨겁다며 애꿎은 국물을 핑계 삼아 슬쩍 눈가의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냈더랬다.

문득 키플링(Joseph Rudyard Kipling)이 한 말이 떠올랐다(동화 <정글북>의 작가로 잘 알려진 분이다). “신은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기에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God could not be everywhere, and therefore he made mothers).”

예전 어느 일요일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농구선수 출신 예능인 서장훈 씨가 말했던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서장훈 씨가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면 부모님께서 밤길 조심하라며 늘 당부하신단다. 그는 모두가 잘 알다시피 키가 2미터가 넘는 장신이다. 당대 최고의 운동선수였고, 그야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장신의 건장한 아들이, 안전한 대한민국 밤길에 도대체 누구를 조심하고 다녀야 한다는 건지 피식 웃음이 났다. 한편 나이 든 부모님이 과년한 자식을 걱정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아 왠지 마음 한편에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필자의 어머니는 일흔이 훌쩍 넘으셨고, 체격도 왜소하시다. 그간 별 탈 없이 그럭저럭 잘 지내셨는데, 연세 탓인지 이제는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고, 최근에는 회전근개 파열로 어깨 수술도 하셨다.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 드리고 싶지만, 마음뿐이고, 지방에 산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지내는 형편이다. 틈나는 대로 전화라도 드리게 되면, 당신 아프고 불편한 얘기는 전혀 안 하신다. 늘 잘 지내고 있다고만 말씀하신다. 오히려 밥은 잘 먹었냐, 감기는 안 걸렸냐, 무리하지 마라, 운동해라, 신체 건강한 중년의 아들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시다.

오래전 읽고 마음 깊이 남아 있는 글귀가 있다. 마음에 들어 작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책상 곁에 붙여 두고 있다. Youth fades, love droops, the leaves of friendship fall; A mother's secret hope outlives them all(젊음은 사라지고, 사랑도 시들어 가고, 우정이라는 잎새 역시 떨어져 나가지만, 어머니의 은밀한 바람은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는다). 젊음보다 더 오래가고, 사랑보다 더 오래 지속되며, 우정보다 영원한 어머니의 그 비밀스러운 바람은 과연 무엇일까.

글 오세준(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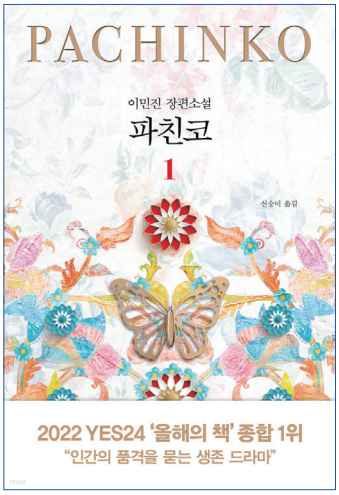
그래도 가족, 결국 가족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결국 대화가 끊긴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 차갑고 기댈 곳 없는 이 세상에 따스함을 전하는 것은 늘 '가족'이었다.
소설과 영화로 잠시 잊고 지낸 가족의 온기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얼마 전 프랑스 소설가 다비드 포앙키노스(David Foenkinos)의 장편 <마르탱네 사람들(La Famille Martin)>을 읽은 적이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흔한 '마르탱'이라는 성씨를 가진 한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다룬 이 소설은 동네 마트에서 쉽게 마주칠 것 같은 평범한 아빠와 엄마, 10대 자녀들, 그리고 이웃에 홀로 사는 할머니의 무딘 일상도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순간 각자 얼마나 미스터리하고 드라마틱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회사에서 조퇴조차 해본 적 없을 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아빠 마르탱이 새로 부임한 사장의 횡포에 맞서 뜻밖의 사건을 벌이고, 그 사건 덕분(?)에 줄곧 이혼을 고민하던 아내와 정서적인 공감대를 되찾는가 하면 SNS에 여념 없는 10대 아이들의 영웅으로 거듭나는 전개는 폭소와 눈물을 자아내고, 마침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만났던 첫사랑을 찾아 나서는 치매 할머니의 설레는 여정과 뒤엉키는 마르탱 가족의 갈등과 화해는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마르탱네 사람들>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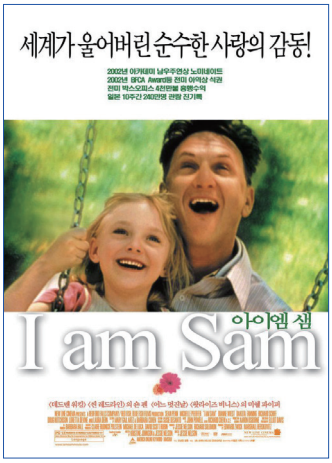
소설 <파친코> 표지

가족의 갈등 그리고 화해

2022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이웃의 눈에는 흔한 가족일 수 있지만, 그 구성원들에게 엮인 삶은 세계사보다 파란만장한 역사이자 치열한 생존이다. 4대에 걸친 재일조선인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 순자의 고단하지만 올곧은 성장은 성공을 향해 내달리기만 하던 손주 솔로몬까지 제대로 각성하도록 이끈다. 때로 벗어나고 싶은 가족이었지만, 결국 가족이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애틋함은 세대 간의 벽을 뛰어넘고 울컥한 이해의 영역으로 독자까지 끌어당긴다. 애플TV의 드라마 <파친코> 역시 2022년 미국영화연구소(AFI)가 '올해의 10대 TV 프로그램'으로 선정했을 만큼 믿고 봐도 좋은 수작이다. 두툼한 소설을 미처 읽지 못한 독자라면 드라마로 그 뜨거운 가족애를 목격해도 좋을 듯하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집에 가요"

"애들도 한 번쯤 아빠가 뭔가 해내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를 보다 괜히 코끝이 찡해오던 대사가 있었다. 낯선 미국 땅 아칸소로 떠나온 가족에게 뭔가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아빠 제이콥이 무모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며 아내에게 내뱉은 말. 해외로 이민을 떠난 적도,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일군 적도 없지만, 동시대를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들여다보이던 그 목소리에 견인되듯 다소 답답해 보이던 남자 주인공에 대한 애정이 솟구치기까지 했다. 할머니의 한국식 장난에 질색하던 어린 손자로 하여금 다시 할머니의 팔목을 잡아끌며 "우리랑 같이 집에 가요"라고 외치게 만든 뜨거운 무엇, 그것이야말로 가족의 힘이 아니었을까. 지난해 4월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에게 여우조연상을 거머쥐게 해준 <미나리>는 언제든 다시 봐도 흐뭇한 가족의 연대를 전한다.



<미나리>, <아이 앰 샘>, <브로커> 포스터(출처: 네이버 영화)

사실 영화로 시선을 돌리면 감동적인 가족영화가 너무 많다. 지적 장애를 겪는 아버지의 절절한 부성애를 다룬 2002년작 <아이 앰 샘(I Am Sam)>부터 안면기형 장애를 가진 아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담아낸 2017년 작 <원더(Wonder)>,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소년 미구엘의 모험을 그린 2018년작 애니메이션 <코코(Coco)>, 그리고 베이비 박스에 담긴 아기를 매개로 모인 사람들이 혈연과 무관한 가족으로 뭉쳐 길을 나서는 2022년작 <브로커(Broker)>까지. 뛰어난 가족영화는 가족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조건 없이 나를 안아주는 건 결국 가족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는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게 가족”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다케시 특유의 블랙코미디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지만, 지긋지긋하면서도 끊어낼 수 없는 가족의 울타리를 명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다. 우리에게 가족은 지나치게 가까워 함부로 평가절하되곤 했던 것은 아닐까. 때로 타인보다 건조한 관계일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보다 많은 순간 ‘피는 물보다 진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위안해 줄 수 없는 이 지구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조건 없이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존재도 가족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글 정명효(칼럼니스트)

행복한 가족 대화법을 소개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하지만 가족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사소한 오해가 쌓여 싸우게 된다.
피할 수 없는 부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닐까요?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남보다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존재합니다. 둘도 없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지는데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 알겠지' 하며 표현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점점 오해가 쌓이고 다툼이 생깁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녀지만 짜증과 화라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심한 말을 서로에게 내뱉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하고, 남편은 결혼 후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어떠한가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지금의 아버지 세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는지 답답해하며 언성이 높아집니다. 자녀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아버지 때문에 입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불안함을 자녀에게 전가합니다. 자녀의 실패를 엄마의 실패로, 자녀의 성공을 엄마의 성공으로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실패를 온갖 노력으로 예방하려 합니다. 실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실패를 하며 성장합니다. 실패를 해야 배우지만, 실패할 기회를 잃은 아이들은 성공할 기회도 빼앗기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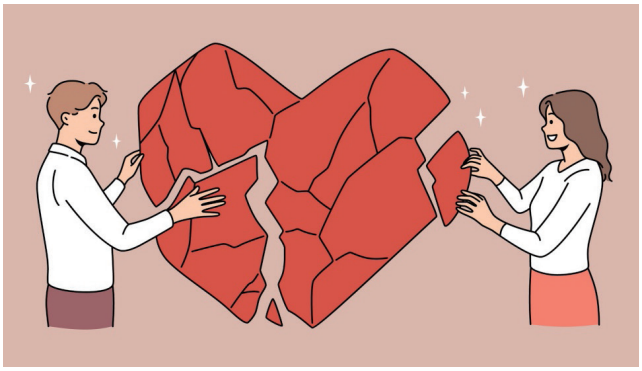
인간의 몸에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되는 것처럼, 가족도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관계에 빨간 신호가 뜹니다. 다른 집도 다 이러고 사는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루라도 마음 편안하게 두 발 뻗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소통 방식, 즉 대화법을 바꿔야 합니다. 가족 간 대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의식적으로 대화 방식을 훈련하다 보면 누구나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폭력 대화법인 관찰, 느낌, 욕구, 부탁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관찰

잘 관찰한다는 것은 대화의 첫 단추를 잘 채웠다는 뜻입니다. 모든 대화의 시작은 관찰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눈으로 본 사실만을 잘 관찰해도 세상의 많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 추가되어 눈으로 본 사실을 왜곡하여 판단해버립니다. 인간은 이전 기억과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관찰과 판단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당신은 내가 원하는 건 좀처럼 하지 않아"라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관찰)이번 주에 내가 부탁한 세 가지를 다 하기 싫다고 했어"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말해보세요.

2. 느낌(감정)

화를 내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했나요? 그래서 화가 났나요? '화'라는 감정은 나를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사실 인간은 두렵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다양한 감정으로 자신을 방어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당신과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 무서웠어. 그래서 화가 났어." 그러면 상대는 분명히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자녀에게 화를 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다칠 것 같아서 무서웠어. (네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화가 났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솔직한 느낌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3. 욕구

욕구, 욕망이라는 단어가 불편한가요? 사실 인간을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욕구입니다. 배를 채우고 싶은 욕구는 우리를 냉장고로 향하게 만듭니다. 배움에 대한 욕구는 책을 구매하거나 학원을 등록하게 만듭니다. 사랑에 대한 욕구는 이성을 찾게 만듭니다. 이렇듯 다양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구를 꽁꽁 숨깁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말로 명분을 만듭니다. 대부분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표현하면 그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편식을 하는 아이에게 "골고루 먹어야지!"라는 말 대신 "네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기 때문에 네가 음식을 남기면 걱정스러워"라고 말해보세요. 부모의 마음을 솔직히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부탁

부탁은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는 가장 세련된 방법입니다. 부탁에 대한 훈련이 미숙하면 자칫 명령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더 협조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탁할 때는 막연한 말 대신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시간, 날짜, 횟수).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라는 애매한 부탁보다는 "우리 일주일에 세 번은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자"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하면 상대방이 들어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관찰, 느낌, 욕구, 부탁에 대한 대화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읽고 끝내지 말고 출력해서 냉장고 등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보고 훈련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나부터 이 대화법을 시작해 보세요. 소통이 한결 편해집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가족을 응원합니다!

글 양현진(좋은아빠 육아연구소 대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가족의 개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 가구', '1인 가구'라는 말은 이미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마포구청 가족행복지원과 1인가구지원팀은 이 모든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팀이다.

마포구청 1인가구지원팀 황은경 주무관, 이성애 주무관, 김미자 팀장, 정고운 주무관(왼쪽부터)

반갑습니다. 먼저 마포구청 1인가구지원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마포구청 가족행복지원과 내에서 다문화 가구와 1인 가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입니다. 기존에는 출산다문화팀이었는데 출산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정비된 팀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다문화 가구 업무에 현재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1인 가구 업무를 더해 일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족센터와 연계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가족센터와는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요?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배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마포구가족센터는 구청에서 여러 문제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워 민간에 위탁을 준 곳입니다. 마포구의 가족 관계 형성에 관한 서비스를 맡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족 상담, 부모 교육, 아버지 소통 프로그램 등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서 파생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마포구에는 2천2백 가구 정도의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 다배움 사업은 2022년에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을 지원해 학교 적응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다배움 전담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연령별로 한글과 수를 재미있게 깨우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거나 어미니가 일을 하는 다문화 가족에게는 다배움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족센터가 진행하는 다배움 프로그램
사진 제공 / 마포구청

다배움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문화 가정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결혼 이민자인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가정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한국어의 발달이 늦는 경우가 종종 있고, 학습 정보력 격차 때문에 기초 학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기초 학력을 다지려면 별도의 사교육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사교육조차도 학원을 직접 알아보고 아이의 학습 레벨을 테스트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다행히 다배움 사업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소했고 덕분에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어머니들은 초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단계별로 이런 수업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계세요. 프로그램 참가 경쟁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추진 중인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 품앗이, 다문화 가족 나눔 봉사단, 결혼이민자 자조 모임,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등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시너지도 큽니다. 지역사회의 숨어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공동육아 나눔터의 경우, 육아에 관심 있는 가족들이 모여 육아 정보를 공유하거나 서로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모임 공간을 제공하거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교구 등을 대여해 드리기도 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생적인 모임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다문화 가족끼리 네트워크가 구축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간 해왔던 다문화 사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2020년부터 3년간 실시한 다문화-비(非)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레인보우브릿지'입니다. 이는 다문화 가정과 비 다문화 가정 중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에요. 엄마들은 공예품을 같이 만들거나, 아이들은 드론 및 3D 프린터 수업 등을 받고, 모두 함께 참여하는 서울 명소 탐방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쪽 가족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다문화 가정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면서 지역사회 적응력을 키웠고, 비 다문화 가정에게는 다문화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인식 변화가 쉽지 않은 어른들에게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마포구가족센터를 관리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도 소개해주세요

마포구가족센터는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10년 전보다 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해 일을 하고 있어요. 또 1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독립된 센터가 필요할 정도가 되었지요. 훨씬 더 많은 정책과 지원, 다양한

레인보우브릿지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과 비 다문화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제공 / 마포구청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며 일을 하는 게 꽤 만만치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마포구에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1인 대학생 가구도 많지요. 하지만 실상을 보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양한 연령뿐만 아니라 미혼, 비혼, 이혼, 사별 등 결혼의 유무와 형태, 경제력 정도, 취업 여부, 성별 등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고, 요구사항도 다양합니다. 마포구나 마포구가족센터는 올해 지원하지 못한 분야는 2023년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가족'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부모+자녀의 구성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결혼-임신-출산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틀을 벗어나면 정상 가족이 아니라고 치부해왔지요.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 즉 한 부모 가정, 미혼모·부 가정,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부부, 다문화 가정 등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가족행복지원과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의 개념을 더 넓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는 꼭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서류상 가족이지만 남보다 못한 경우도 많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 나에게 지지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 혹은 그 외에 특정한 다른 무엇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포구가 2022년 10월부터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희 팀은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내년에도 다문화 가정, 1인 가구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글 이경희 **사진** 307스튜디오